

의암

주논개 제전

불멸의 민족혼 아, 논개!



탄신 제448주년 기념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55회 장수 군민의날

일시 2022년 09월 28일 (수)

주최·주관  장수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장소 한누리전당 산디관, 한누리전당 일원

의암주논개 약사



- 1574년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4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관아에 수감됨.
- 1579년(5세) 이른 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8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3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6세)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시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8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19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 (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의암(義巖) 주논개

거룩한 분노와 숭고한 죽음으로 국난을 극복하다.



의암 주논개의 삼대정신(精神)

첫째, 제 몸을 불살라서 주변을 밝히는 인애정신(仁愛精神)

둘째, 패권주의에 맞서 끝내 항거한 의용정신(義勇精神)

셋째, 사대부도 아닌 아녀자의 몸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지아비를 사랑한 충렬정신(忠烈精神)

논개 고을 푸른장수

장수 군민 헌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01 / 민주문화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문화**를 꽃피운다.



02 / 공공질서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 한다.



03 / 내 고향 개척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 사는 **내 고향**을 개척한다.



04 / 행복한 삶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며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05 / 내 고향 사랑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군정방침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 1.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 1.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 1.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 1.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 1.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장수군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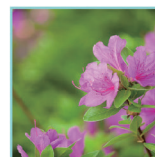
장수군 심볼마크



군목: 소나무



군조: 비둘기



군화: 산철쭉

탄신 제448주년 의암주논개 제전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

행사 일정표

구분	행사명	시간	장소	진행	행사내용
논 개 제 전 행 사	제례봉행	08:30~ 09:20 09:20~ 09:30	의암사 영정각 기념식장 이동	안 충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개요 - 제례봉행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 참석자 : 50명(의회의원,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선양회원 등) - 주최: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식전공연	09:00~ 09:30	산디관 앞 광장	박 문 용	● 농악풍물단 공연
		09:30~ 09:50	산디관	사회자(박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연주(청춘기타반) ● 시낭송(장수 愛 시낭송문학원)
	기념식	09:50~ 10:20	산디관	사회자(박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빈소개 ● 개회 ● 국민의례 ● 군민헌장낭독 ● 군정발전유공자표창 ● 군민의 장 수여 ● 기념사, 식사, 축사
	공식행사	10:20~ 11:00	산디관	사회자(박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개상 추대자 시상식 - 추대자 공적소개 - 총의관수여 / 장수군수 - 축하꽃다발 전달 / 장수군의회의장 - 상금및상증전달 / 선양회장·여성신문사 사장 - 수상자인사 및 사진촬영
	축하공연	11:00~ 12:20	산디관	사회자(박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절무 공연 (“논개충절무 무용단”) ● 진주초청팀공연(솔레이밴드팀) ● '21논개시퍼포먼스대상' 예술단 ● 초청가수공연 (정유근, 나도경, 유상록)
	폐회	12:20~	산디관	사회자(박근아)	● 폐회
	부대행사	09:00~	한누리전당	-	● 사진전시회, 시화전
		12:20~	한누리전당	-	● “서예, 전복의 산하를 날다” 기획 전시, 개관.

기념사



장수군수
최 훈 식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온갖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에 의암 주논개 탄신 제448주년과 제55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수군은 임진왜란 때 왜장을 꺼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의암 주논개님이 태어난 충절의 고장입니다.

매년 '주논개님의 탄신제'를 기념하여 한국여성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하고 의암주논개상像으로 추대하여 수여해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충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장수군민으로써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의기투합의 장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이 하나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장수군은 의암 주논개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암 주논개 추모제, 장수논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의암 주논개 제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장수군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암 주논개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고 군민의 생각과 마음을 받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목표로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으로 미래농업 중심의 부자 농촌,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과 행복한 일상을 위한 희망복지, 공존하는 문화관광이 있는 장수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암 주논개 탄신 제448주년 기념행사 및 제55회 군민의 날 준비에 한마음으로 힘 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식 사



(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신 봉 수

청명하고 풍성한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장수인의 정신적 지주이며 이 나라 우국충절의 표상이신 의암 주논개 탄신 제448주년 기념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큰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논개 님의 삶처럼 나라 사랑과 사회 발전에 귀감이 되어 제15회 의암 주논개 像으로 선발되신 전정희 전북 여성교육 문화센터장님에게 축하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논개상으로 추대되신 후 논개 정신 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한국의 정 신명 대표님과 여성 신문사 김효선 사장님께도 경의를 드립니다.

의암 주논개님은 나라 위해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 忠魂과 義兵 정신은 죽지 않고 역사 속에 부활되어 4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불멸의 민족혼으로 겨레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東西가 함께 논개 정신을 국혼으로 승화하기 위해 논개님의 순국 거사지인 진주시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진주 논개제에 공식으로 초청받아 참배하고 논개충절무 공연행사도 가진 바 있으며 오늘 행사에는 진주문화예술단과 함께 추모 사절단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논개님과 인연이 있는 함양, 화순지역과의 교류 폭도 넓혀 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축하공연은 논개충절무 등 논개님을 주제로 한 공연물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짧지만 님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전국 논개 판소리 대회, 논개 시 낭송 퍼포먼스 대회, 2백리 논개길 자전거대회 등이 탄신일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펼쳐 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축사



장수군의회 의장
장정복

반갑습니다. 장수군의회 의장 장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없이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몸과 마음이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에, 의암주논개님 탄신 제448주년 의암주논개 축제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훈식 군수님과 충절의 상징인 주논개님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신봉수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헌신과 봉사의 공적을 인정받아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장수는, 지속적인 코로나일구로 마음과 지역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인건비는 증가하며, 세계적인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제9대 장수군의회와 민선8기 장수군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의회는 집행부와 협심하여 군민분들이 마음 편히 잘살 수 있는 행복 장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축제로 우국 충절의 표상이신 논개님의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군민이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축사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애국 충절의 고장 장수에서 열리는 「탄신 제448주년 의암주논개 축제 및 제55회 장수 군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최훈식 장수군수님과 신봉수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암 주논개 축제는 국난 극복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논개의 충절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열녀의 헌신적인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논개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는 민선 8기 전북 도정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수군민의 날 기념까지 겸해 한층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동 화합의 장이 되어 지쳐있던 일상에 활기를 되찾길 바랍니다.

장수군과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축사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안 호 영

안녕하십니까,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추석을 지나 완연한 가을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즈음 의암 주논개 탄신 제44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제55회 장수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행사를 준비해주신 사단법인 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신봉수 회장님, 장종현 사무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수군은 장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긴 물줄기인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과 절개의 기운이 도도히 역사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장수향교를 지킨 정경손, 타루비의 통인 백씨, 충절의 상징 주논개 등 '장수 3절'은 우리 장수군의 큰 자부심입니다.

국가와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와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군은 대한민국의 정신세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맨 앞에는 바로 '주논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귀한 자기 한 몸을 초개와 같이 던지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논개 정신'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표상이며,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고의 가치입니다.

저도 주논개님의 고귀한 애국충절의 정신을 가슴 속에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논개 정신'이 장수군을 넘어 모든 국민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성을 담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수군은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 맛있는 레드푸드가가득해서 활력과 건강을 챙기기에 더없이 좋은 고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장수군의 맛있는 레드푸드와 청정한 기운도 즐기시고, 주논개의 변치 않는 애국충절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축 사



전라북도의원
박용근

탄신 제448주년 의암주논개 축제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의암주논개님은 장수군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애국충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은 더욱 더 우리들의 얼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 합니다.

장수 출신 논개님은 임진왜란 발생 후 진주성 전투에서 적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하기까지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보냈습니다.

논개님의 정신은 일제 강점기 때에도 독립운동가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고, 마침내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기 까지 민족 정신의 큰 기둥이 되어 왔습니다.

21세기 한일 관계에서 논개님의 애국충절을 잊지 말고 자주적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정세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수군민 모두 하나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장수군민의 날입니다.

장수군은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하고, 기후 위기속에 선진농업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장수가야를 더욱 연구해 장수관광의 이정표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호영 의원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을 잇는 둘레길 및 전북 천리길, 이성계 승리길 조성을 위한 용역들이 진행중인 만큼 지역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장수 군민의 날을 맞아 모든 군민들이 장수발전을 위해 합심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북도와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의암 주논개” 일대기

| 義巖 朱論介 一代記 |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 일, 갑술시-1574.9.3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 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 살 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희 현감이었다. 최 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 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희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 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툴툴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회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 회의 외침 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 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骨鳥)자부대로 이름 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호남 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회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 진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회, 김천일, 황진 3장사등 진주성이 함락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 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붙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 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 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 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合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 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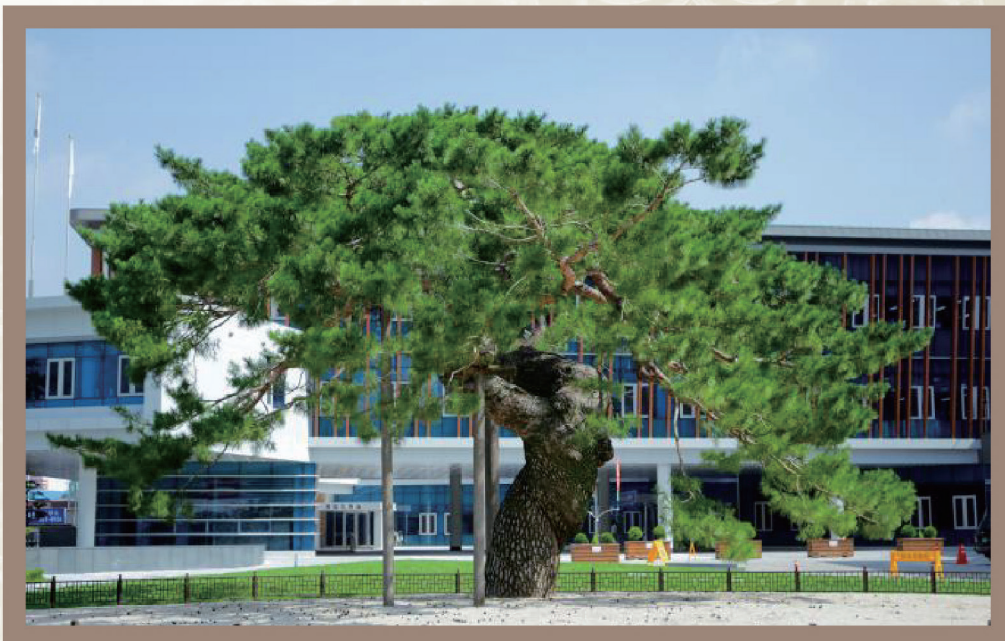
장수군 논개 관련 유적지

의암 주논개사당 (의암사)



- 지정** 기념물 제46호 (1981. 4. 11 지정)
- 규모** 면적 28.274㎡
- 위치**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41

의암송



- 지정** 천연기념물 제397호
- 위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군청 청사 앞

장수군 논개 관련 유적지

의암 주논개 생가지



위치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558

규모 면적 67.460㎡

월강사



지정 문화재 자료 제31호

위치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562-1

2022년 제15회 의암 주논개상(像) 추대자



인적 · 경력사항

- 성명 : 전정희 (全正姬)
- 출생년도 : 1960년 (만61세)
- 거주지 : 전라북도 익산시
- 1960. 10 : 전북 익산시 출생
- 1985. 8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졸업(정치학석사)
- 1992. 2 :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 2009. 3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1999.10 ~ 2012. 03 :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 2012. 5 ~ 2016. 05 : 제19대 국회의원
- 2022. 1 ~ 현재 : 전북여성교육 문화센터장

포상기록

- 2013년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2014년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국회의장)
- 2015년 :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선플재단)
- 2016년 : 국회의원 종합 헌정대상 등

주요공적

- '99부터 10년간 전북여성 정치발전센터를 설립, 여성 인권 평등, 정치 참여 등 여성역량 및 지위 향상에 기여
- '05 ~ '06 전북여성정책 연구소장 재임 시 포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여성 취업, 저출생, 다문화가정 등 여성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일본, 중국 등 대외교류 확대
-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의 인권과 복지,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법안 발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 영호남(전남북, 경남북)교류회를 통해 지역간 장벽해소 및 동서간 협력 분위기 조성

역대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



제1회
성계옥



제2회
이화성



제3회
공정자



제4회
조금숙



제5회
안숙선



제6회
이금형



제7회
이명숙



제8회
이효균



제9회
윤미향



제10회
김별아



제11회
김효선



제12회
문경란



제13회
김숙임



제14회
신명

2022년 제55회 장수군민의 날 군민의 장 수상자



◆ 애 향 장 ◆

이 군 형 (만60세)

- 재전 장수군 향우회장
- 재전 장수군 향우회 발전 기여
- 2021년 설명절 취약계층 100만원 성금 기탁
- 로타리클럽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 효 열 장 ◆

정 은 속 (만63세)

- 지극한 정성으로 30여년동안 시모 극진봉양
- 노인공경에 솔선수범하여 효사상 실천
-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지역사회발전 기여
- 2021년 계남향약 효부상 수상
- 2022년 계남면민의 장(효열상) 수상

제3회논개님흔적따라 2백리길자전거대회

일시 | 2022.11.6(일)

장소 | 장수군 누리파크



주최 | 장수군 체육회 주관 | 장수군자전거연맹 후원 | 장수군·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참가 | 함양·무주·진안·익산·전주·장수 자전거 동호인 200명 선착순



80km 코스

반환

“불멸의 민족혼, 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제11회 전국 논개詩낭송 퍼포먼스 대회

일시: 2022. 11. 12.(토) 오후 13:00 ~ 18:00

장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소공연장(3층)

접수기간: 2022. 9. 19.(월) ~ 10. 17.(월) 18:00

주최·주관: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후원: 전라북도, 장수군

※ 코로나19유행시 변경될수 있음

◆ 대회안내 ◆

작품기준: 민족시를 우선으로 하며 논개 관련시 한편 이상

조 건: 3인 이상 참여, 3인 7분 이내 / 5인이상 12분 이내

심사방법: 신청서 및 MP3 녹음 파일 : 음악 없이 육성 녹음 파일 (대본 대체),
동영상 5분이상(논개시 관련 가산점)

예선발표: 2022. 10. 22.(토) 17:00 (논개정신선양회카페, 개별연락)

접수방법: sub28@naver.com / 논개정신선양회 홈페이지

제출 서류 방법

1) 홈페이지 : 논개정신선양회 <http://www.nongae.co.kr>

2)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음 카페<논개정신선양회>

※ 제11회 전국 논개詩낭송퍼포먼스 대회 참가 신청서

문의처: “제11회 전국 논개詩낭송퍼포먼스 대회” 집행위원회

010-3657-0528(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사무국

010-3116-8580전북재능시낭송협회

◆ 시상 내역 ◆

논개대상(국회의장상) ————— 1팀 3,000,000원

금상(忠)(전라북도지사상) ————— 1팀 1,500,000원

은상(孝)(장수군수상) ————— 2팀 2,000,000원 (각 1,000천원)

동상(烈)(장수군의회의장상) ————— 2팀 1,600,000원 (각 800천원)

장려상(논개정신선양회장상) ————— 4팀 2,400,000원 (각 600천원)

의암 주논개 탄신 제488주년 기념

2022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2022.11.19(토) 18: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주최·주관 | 널마루무용단

후원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장수군·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논개,
꽃피는 그대여!



함께 나누는 마음,
프리미엄 대한민국 1%
장수한우 명품관에서
함께하세요.

내 마음대로 선물세트



국거리, 불고기, 사태,
장조림, 사골, 꼬리, 우족 **50%할인**



깨끗한우·안전한우
장수한우

태어나고 자란곳이 특별한
장수한우 이야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균고도 540m의 호남지역
동부권 최고의 청정지역 장수군에는
사계절이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
장수한우가 있다.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장수군에서
무(無)항생제로 키운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대표 청정 한우
“장수한우”는
특별한 맛과 품질로
감동을 드립니다.



☎063-352-8088
전북 장수군 장수읍 군청길 19

논개

변영로 시인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웠던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魂)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